

# 이재명 “변화하되 단합·단결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인재영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영입된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 /연합뉴스

## 민주당 대표 국회서 기자간담회… “총선 승리해 정권 폭적·퇴행 저지” 선거제 개편 의견 수렴… ‘인재 2호’는 NC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당 채신과 관련해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재 2호’로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53)씨를 영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가 민주당에 미칠 영향, 당내 비주류의 연내 대표직 사퇴 요청, 이날 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적 또 퇴행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권력까지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시스템까지는 어떻게든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 아마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시스템에도 상당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두 가지의 지향점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의원님들 의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입 인재 2호인 이재성 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롤 모델”이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나뉘는 4차산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혁신경제를 끌어올릴 책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씨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뒤 포항공과대와 부산 고신대의대를 거쳐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독특한 이력

을 갖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이태동통신회사 한솔PCS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2002년 당시 벤처회사였던 넷마블로 이직했다. 이후 엔씨소프트 전무,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NC문화재단 전무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5년간 임원을 지냈다. 또, 비대면 교육 설루션을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처스 콜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새솔 테크 대표이사(CEO)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새솔테크 고문으로 있다.

민주당은 “이씨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임해왔다”며 “부산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기지 1968’의 초대 기지장(센터장)을 맡아 부산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섰으며, 부산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고향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격차 해소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2호 영입 인재인 이재성 씨는 한마디로 혁신경제 리더라고 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교육·R&D(연구·개발)·미래혁신경제 부문에서 선두에 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중대재해법 유예 협상 안하면 다음달 시행”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당정, 예산안 안중에도 없이 허송세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대상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연말 내에는 그 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 없이 법은 예정

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반란,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허송세월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영록 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 70% 육박

### 지난달 독보적 1위…민선 8기 17개월 연속 도민 강력 지지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긍정 평가 70%에 근접했다. 긍정 평가는 전달보다 0.3% 포인트 상승하며 69.3%를 보였다. 국고 확보 노력,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주력, 전남의 미래 비전 제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69.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사의 도정에 만족하는 압도적인 지지세다.

긍정 평가 2위는 김동연 경기지사(61.6%)로 전달보다 0.2%p 하락했으며, 3위는 김관영 전북지사(58.0%), 4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4.8%), 5위



는 김두겸 울산시장(52.6%)이다. 전남의 주민 생활 만족도는 61.0%로 전달보다 0.1%p 상승해 6위로 3단계 상승했다. 김영록 지사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때부터 지난 10월까지 17개월 연속 17개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선두였다. 민선 7기 때도 지방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한 43개월 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30차례 1위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모두 47회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결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2023년 9월22일-25일, 10월 27일-29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사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정의당, 류호정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 금태섭 전 의원과 창당 선언…17일 징계위 회부 방침

정의당은 14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과 창당을 선언한 자당 소속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17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및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8일 당내 청년 의견 그룹 ‘세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인 류 의원이 금 전 의원과 공동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오는 16일까지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

할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정의당은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류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대변인은 “류 의원은 꿈으로 세금 도둑질을 하고, 의원직을 개인 이득에 악용하는 행보를 그만두라”며 “그게 본인이 밝힌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을 향해 “창당을 함께하는 류 의원의 잘못된 거취를 방지해선 안 된다”며 “법과 도의를 거스르는 류 의원의 행보는 금 대표가 표방한 새로운 정치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박지원, 내일 해남서 ‘지금 DJ라면’ 출판기념회

### 전 국정원장…해남·완도·진도 출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특기다. 최근까지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특강도 했다.

박 전 원장이 16일 오후 2시 해남군 해남읍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DJ라면’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연다.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기념회에서 붕괴된 서민 경제, 악화된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지형의 변화, 민주주의 파괴 등을 놓고 ‘지금 DJ(김대중)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정



치 행보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가 고향인 박 전 국정원장은 ‘박지원’ 하면 누구나 아는 인지도, 중앙 정치권에서의 존재감, 동행하는 지역구 군의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갖춘 조직력 등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박 전 원장은 총선 출마와 관련, 지난 국회의원 시절 진행했던 ‘금귀월래’(지역구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여의도로 돌아온다는 뜻)를 해남·완도·진도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며 총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onggwangju Nonghyup (서광주농협).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lists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including NH Card, NH Bank, and agricultural products. Contact information and branch locations are provided at the bottom.